

## 오시는 길



###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21  
T. 032-858-9702~4

# 인천광역시 야생동물

# 발자국

2018

Incheon  
Wildlife Rescue  
Center

발행일 2019. 1. 23

# Incheon Wildlife Rescue Center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contents



-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소개 • 4
- 2018년 통계 • 6
- 구조사례 • 8
- 충돌에 관한 사례 및 대책 • 10
- 미아에 관한 사례 및 대책 • 14
- 부상 또는 조난 야생동물 발견 시 신고방법 • 16
- 야생동물 생태교육 • 18
- 2018년 개소 첫해를 마무리하며 • 19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



##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7일 송도국제도시 끝자락,  
인천에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에는 진료실, 임상병리실, 수술실, 방사선실, 집중치료실, 입원실을,  
실외에는 조류 및 포유류 계류장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이  
치료 및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X-ray, 초음파, 혈액 및 혈구 분석기, 내시경, ICU,  
호흡마취기, C-arm 등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이 다시 자연의 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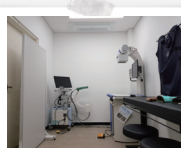
센터전경



진료실



입원실



방사선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임상병리실



약제실



포유류계류장



조류계류장

## Incheon Wildlife Rescue Center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역할

- 부상·조난 야생동물 응급처치, 진료, 수술 및 임상병리검사
- 회복 야생동물 재활 및 자연복귀 추진



- 야생동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및 역학조사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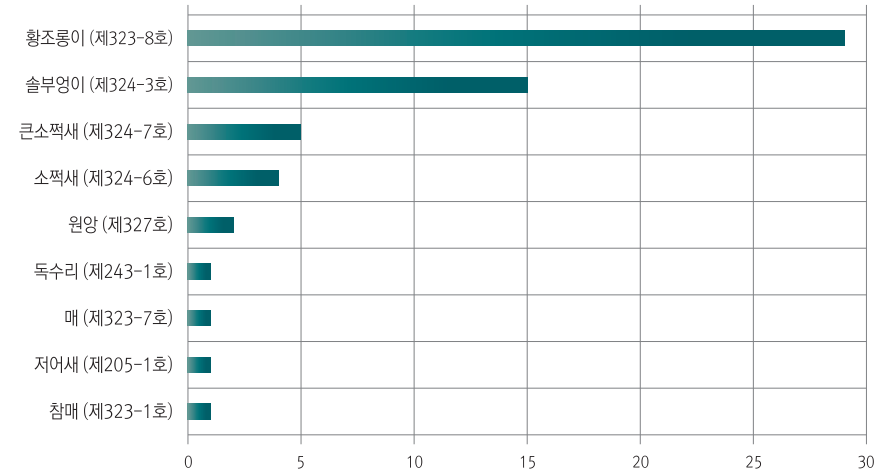
-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구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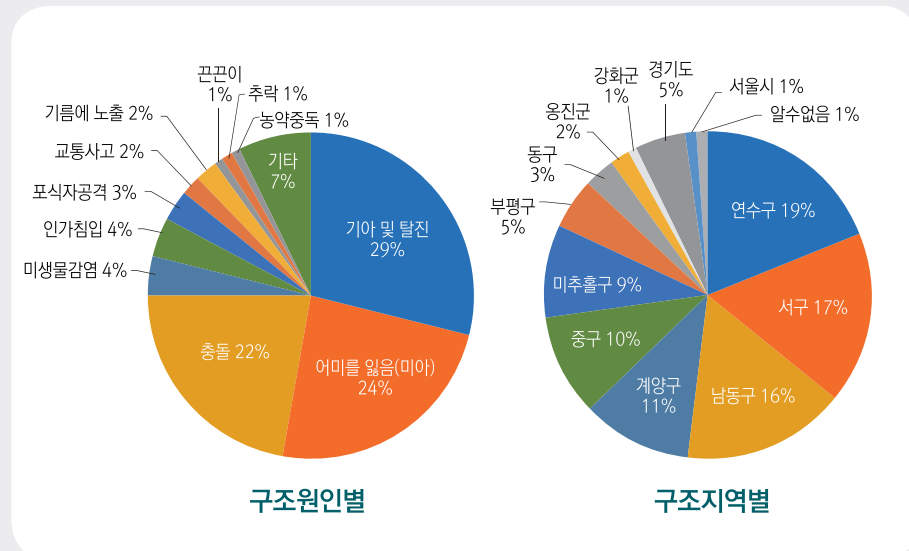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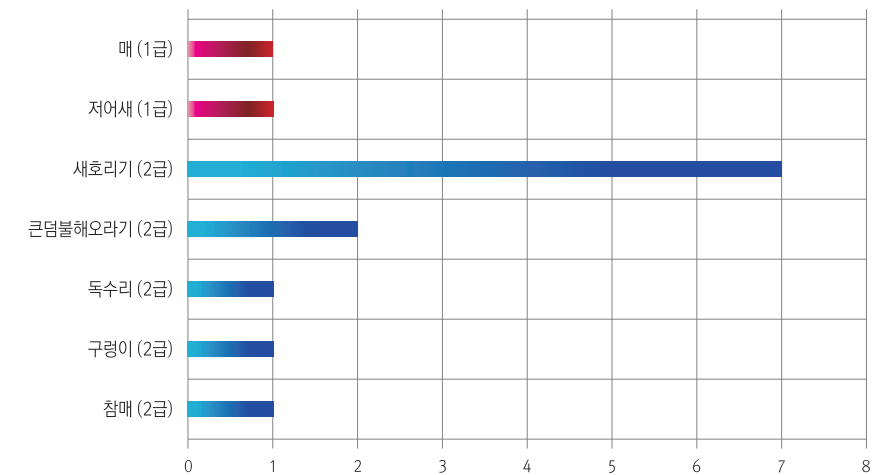
구분	총계	포유류					조류																기타
		계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박쥐	계	매	참매	독수리	솔부엉이	황조롱이	소쩍새	큰소쩍새	저어새	원앙	백로등	쏙독새	새호리기	오리류	갈매기류	기타	구렁이등
구조접수	229	30	7	6	3	14	197	1	1	1	15	29	4	5	1	2	16	5	7	10	7	93	2
자연복귀	103	18	1	2	1	14	84	1	1	-	8	22	2	4	-	1	3	4	6	2	3	27	1

※ 조류(기타) : 개똥지빠귀, 금눈쇠올빼미, 꿩, 동박새, 말뚝가리, 물까치, 물총새, 박새, 방울새, 오색딱따구리, 제비, 직박구리, 청다리도요, 큰덤불해오라기, 파랑새 등

## 천연기념물 구조현황



##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현황





## 황조롱이 ----- 2018-0021 (2018. 5. 15.)

중구 연안부두 인근 철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철탑에 마련한 둥지가 갈 곳을 잃어 공사 관계자분이 직접 데리고 오셨습니다. 새끼 황조롱이 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한 달 넘게 집중치료실 및 계류장에서 사육하고 훈련하여 5마리 모두 자연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 땅의 야생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으며, 사람에 의해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유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이들이 사람이 철거한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고 행복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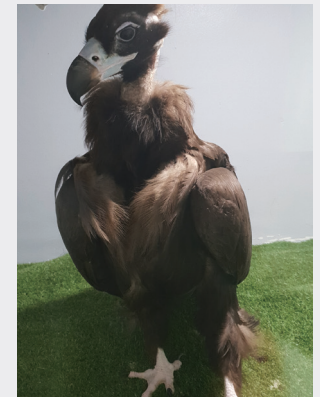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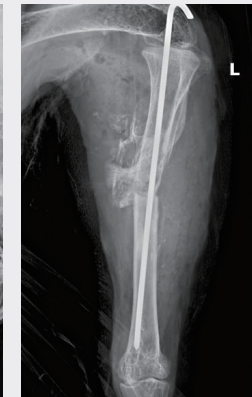
## 중백로 ----- 2018-0142 (2018. 8. 24.)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유치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화단에서 날지 못하고 있는 새를 보고 안타까워하여 서둘러 구조하였으며, 구조 당시 좌측 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센터에 데리고 와서 X-ray 촬영 결과 좌측 어깨관절 탈구 소견을 보여 투시장비를 활용하여 탈구를 교정하였고, 계류장에서 13일간 재활훈련을 마친 후 서식하던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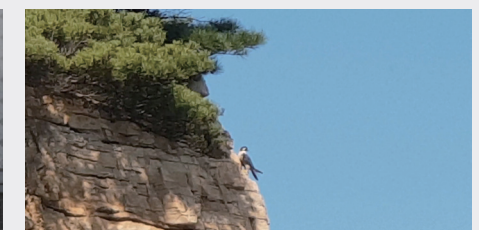
## 독수리 ----- 2018-0103 (2018. 7. 18.)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의 한 닭 농장에 침입한 채 날아가지 못하여 신고되었습니다. 농장주와 옹진군청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백아도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연안부두까지 두 번의 배를 타고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좌측 경골이 부러진지 한참 지난 상태에서 어긋나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독수리의 하중을 오래 견디지 못하여 뼈를 잇는 큰 수술을 실시하였고, 지금은 계류장에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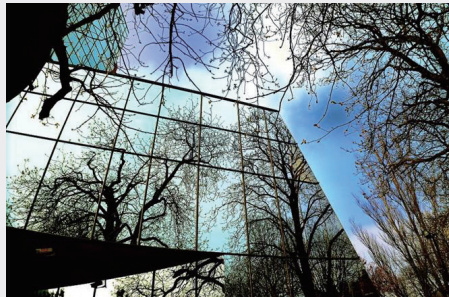
## 매 ----- 2018-0157 (2018. 9. 10.)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에서 구조되어, 백령면사무소의 협조로 장시간 배를 타고 센터에 이송되었습니다. 우측 날개 말단 부위에 외상이 있었으며, 충돌 등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발생으로 날지 못하여 구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류장에서 약 한 달간의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비행활동 및 먹이 활동이 확인되어 백령도로 다시 데려가 서식지에 놓아주었습니다. 한껏 날아올라 주위를 몇 바퀴 돌더니 백령도 두무진의 한 절벽에 앉아 이쪽을 응시하고는 마침내 홀연히 떠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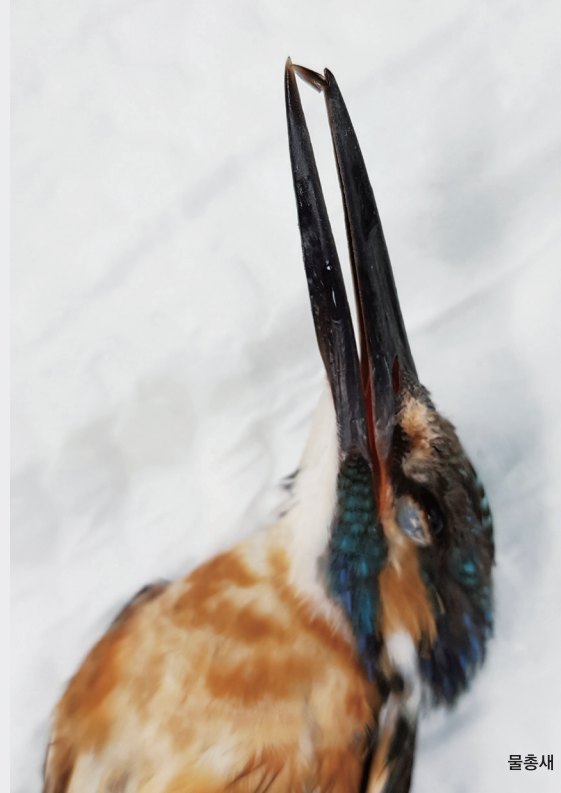


## 야생동물이 충돌하는 원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대비 도로의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설치되는 투명한 방음벽의 경우 빠르게 날아가는 새들이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최근 미적인 이유로 건축물의 외관을 유리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빛이 반사되고 거울의 역할을 하여 하늘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충돌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전선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부딪치기도 합니다.

## 방음벽에 충돌한 조류의 흔적



물총새



큰소쩍새



슬부엉이



소쩍새



## 버드세이버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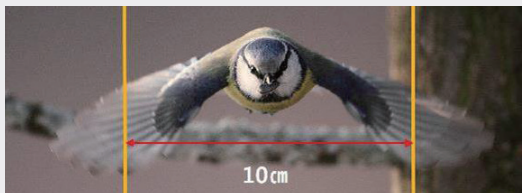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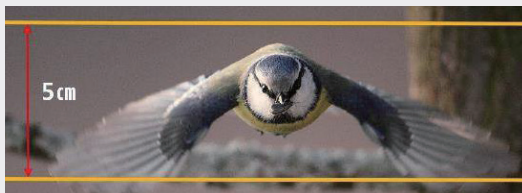
유리로 된 구조물에 맹금류 스티커나 그림 등을 부착하여 새들이 실제 맹금류로 착각하고 해당 구조물을 피해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며, 시골 논과 밭에 설치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드세이버가 부착된 방음벽에 충돌하여 폐사한 새가 종종 관찰되는 등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하기에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맹금류의 모양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새들이 유리로 된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 유리 등 투명한 구조물에 대한 대책

### ※ 충돌방지 시공의 기본 조건: 5×10 규칙

투명성 또는 반사성을 가진 구조물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늬나 문양이 필요하며 그 크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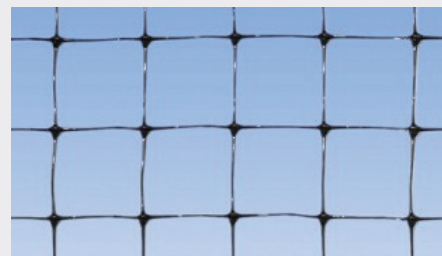


최소 3mm 이상  
무늬간 내부 간격 5cm 이하

최소 6mm 이상  
무늬간 내부 간격 10cm 이하

## 충돌방지 방안 예시

※ 사진 출처: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 자료 인용



그물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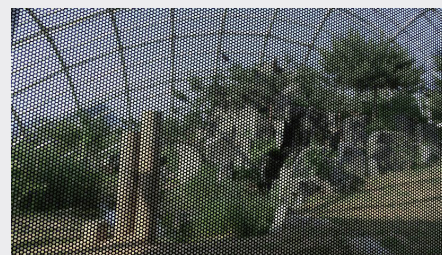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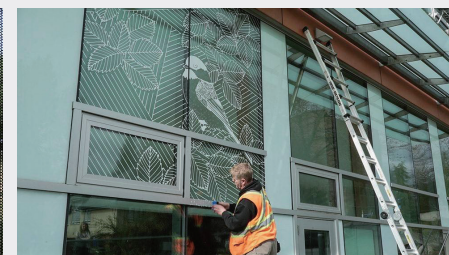
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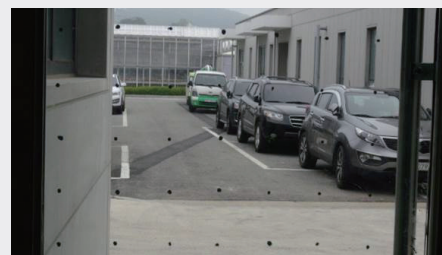
시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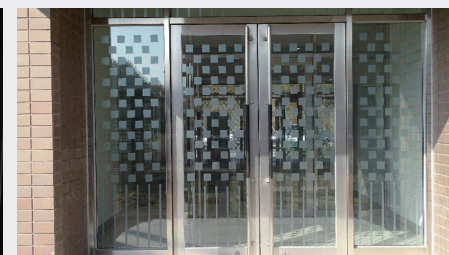
타공필름



페인트



아크릴 물감



UV 패턴 유리



## 진짜 어미를 잃은 것인가?

-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은 4~6월에 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등지에 홀로 남겨지거나 등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 도심지 또는 숲에서 배회하는 새끼 너구리, 고라니 등 번식기의 새끼 동물들이 종종 관찰됩니다. 이 새끼 동물들은 함부로 만지거나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 어미가 사고로 다쳐서 새끼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 새끼의 신체 일부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사람이 구조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미와 함께 살고 있는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발견 당시 어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부르게 구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의 입장에서서는 사랑하는 새끼가 유괴된 상황일 뿐입니다.
- 어린 야생동물을 목격했을 때는 바로 구조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살피고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해 적절한 조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 2018년 어미를 잃은 사례



## 새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친 야생동물 발견 시 주의사항

- ① 동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라면, 사람도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한 후 조치해 주세요.
- ② 동물 구조 시 관계기관으로 즉시 이송할 수 없다면 적당한 상자에 보호해 주세요.  
탈출은 못하도록 모든 면은 잘 막되 숨 쉴 구멍은 확보해야 합니다.
- ③ 조류 중에도 특히 맹금류는 발톱과 부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한 장갑을 착용하고, 수건이나 이불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④ 너구리나 산 같은 소형 포유류는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⑤ 임시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생태를 고려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 POINT ★

개, 고양이 등  
유실·유기동물은  
제외합니다.

### 인천광역시 각 군구 야생동물 담당

기 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 구 청	위생환경과	☎ 760-7392
동 구 청	환경위생과	☎ 770-6442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 880-4594
연 수 구 청	환경보전과	☎ 749-7901
남 동 구 청	환경보전과	☎ 453-2603
부 평 구 청	환경보전과	☎ 509-6647
계 양 구 청	환 경 과	☎ 450-5412
서 구 청	환경관리과	☎ 560-4356
강 화 군 청	환경위생과	☎ 930-3334
옹 진 군 청	환경녹지과	☎ 899-2615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신고 시 진행 절차



인천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자연 복귀 외에도, 앞으로 인천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자 교과를 벗어나 흥미로운 주제를 활용한 야생동물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작한 교육에 7개 학교 100명의 학생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야생동물 생태보호 교육 및 수의사 직업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2019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본 교육은 [꿈길\(www.ggoomgil.go.kr\)](http://www.ggoomgil.go.kr) 등 웹사이트와 유선(☎032-858-9702~4)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한 회에 15명 내외의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도안내 ★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장소이기에  
사전 접수한 학교 및 단체에 한하여 방문을 허용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올해 인천광역시에도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센터 여건상 녹지 않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구조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군구 환경부서 및 119구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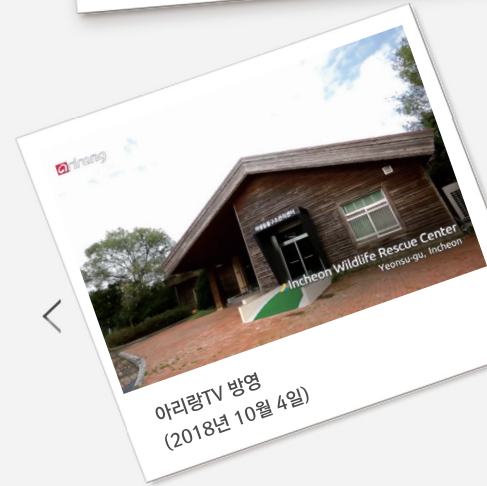
궁극적으로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개소식  
(2018년 3월 27일)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MOU 체결  
(2018년 11월 14일)



아리랑TV 방영  
(2018년 10월 4일)



온통인천 방영  
(2018년 9월 18일)